

광주시립합창단 올해도 알찬 화음

3월 19일 ‘재즈 할렐루야’ 신춘음악회

제주도 4·3항쟁 추모 연주회

5월 19일 브람스 ‘독일 레퀴엠’

6월 18일 美 ‘New choir’ 초청

하이드의 ‘천지창조’, 브람스 ‘독일 레퀴엠’,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헨델의 ‘메시아’, 윤형주와 광주시립합창단의 만남.

지난해 광주시립 예술단체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게 광주시립합창단이다. 지난 2012년부터 2년여간 상임지휘자가 공석이었던 합창단은 지난해 임한귀 지휘자가 부임하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호응을 받았다. 2015년 공연 라인업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첫 공연은 3월 19일 열리는 ‘신춘음악회’다. 오페라 ‘월리엄 텔’ 서곡, ‘재즈 할렐루야’ 등을 선사한다. 3월 24일에는 ‘리골레토’, ‘토스카’ 등 친숙한 오페라 곡들을 만나는 ‘오페라 아리아와 중

장의 밤’이 마련돼 있다.

아픈 역사를 위로하는 연주회도 마련된다. 4월 3일에는 제주도에서 4·3 항쟁 67주기 추모 교류 연주회를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다. 5·18 35주기를 맞아 5월 19일에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공연한다.

6월 18일 열리는 ‘광주시립합창단과 친구들’ 공연은 기대되는 무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New choir’ 합창단을 초청, 함께 공연하며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테너 김지운씨가 무대에 선다. 김씨는 독일 아쿠스부르크코페라극장 전속 주역 가수로 활동중이다.

그밖에 4월 16일에는 박창훈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이 객원지휘를 맡으며 5월 21일에는 국립합창단과 교류연주회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독일 레퀴엠’을 공연한다. 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 음악회도 준비중이다.

한편 합창단은 찾아가는 공연 신청도 받는다. 문의 062-613-8365.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위원 위촉

오늘 4주년 기념행사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12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창립 4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광주문화재단에 기부금을 기탁한 현대병원(원장 최명숙), 광주은행 시청점(지점장 고영조) 등 2개 기관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영진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올해는 세

계 대학생 문화제전인 하계U대회를 비롯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이날 창립기념식에 앞서 조선대 이민창 교수 등 제3기 문화예술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문화정책 및 대외협력,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공연·축제, 전통문화, 기금조성 등 7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

아듀! 윤두서, 큐레이터와의 대화

내일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14일 오후 6시 30분 박물관에서 ‘아듀! 윤두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박해운 학예연구관이 진행하는 이날 행사는 오는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공재 윤두서’전의 90일간의 전시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한 ‘공재 윤두서’전은 조선 후기 회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공재 윤두서 일가의 그림과 서책, 인장 등 200여점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박해운 학예연구관은 윤두서의 면모, 사생과 관찰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적인 회화관, 윤두서 일가의 예술혼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31.

/김경인기자 kki@

우왕좌왕 광주문예회관

무용단장 무리한 재위촉 추진하다 공채 급선회

공연사업 과장은 3개월째 공석… 회관 운영 차질

지난해 새로운 수장을 맞은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은 조직 개편 등을 마치고 2015년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지역 공연 예술계의 대표 기관인 광주문예회관의 경우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위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조직 구성도 마무리되지 못해 회관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립무용단장의 경우 임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재위촉을 추진하다 뒤늦게 공채 채용으로 급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론 청취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예술단체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문예회관 소속 시립예술단체는 모두 7개. 이중 국극단 등 3개 단체 예술감독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현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1조 1항에 따르면 ‘예술감독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전문가 3인 이내의 자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극단의 경우 한 차례 연임을 거쳐 4년을 재임한 윤진철 전 단장의 임기는 지난 12월 22일 임기가 만료됐다. 회관측은 국극단장의 공채 채용을 준비중이다. 지난 2013년 1월 취임,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는 김광복 국악관현악단장의 경우 재위촉으로 가닥을 잡은 것

으로 알려졌다.

김유미 무용단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단장은 지난 2009년 공개 채용을 거쳐 예술감독에 취임한 후 6년을 근무했다. 조례대로라면 김 단장은 더 이상 예술감독을 맡을 수 없다. 문제는 지난 2011년 한번 재위촉을 받았던 김 단장이 지난 2013년 진행된 공모에 응시, 합격하면서 다시 예술감독을 맡게 된 점이다.

회관측은 광주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김 단장이 다시 공모에 응해 예술감독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 재위촉을 추진했었다.

연임 제한 규정을 뒤 6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건 지난 2005년이다. 예술감독 한 사람이 장기 재임할 경우 예술단체 운영이 독단으로 흐를 수 있고, 특정 계보 등을 형성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새로운 인물 등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었다.

예술계에서는 당초 연임 제한을 둔 이유를 되새겨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특정인의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조례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조례 제정 의미를 훼손할 빌미를 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재위촉을 위한 자문 위원 3명 중 한명은 시

립예술단 노조가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관측은 지난 8일 오후 6시 노조측에 공문을 보내 다음날 오전까지 무용단 자문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작업인데 단 몇시간만에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며칠 여유를 달라고 했는데 노조 추천 위원을 빼고 진행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회관측은 무용단장을 공개채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12일 전화통화에서 임안섭 광주문예회관장은 “무용단장은 공개 채용으로 방침을 바꿨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악관현악단은 이주 내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말 임기가 끝난 공연사업과장은 3개월째 공석이다. 공연사업 과장의 경우 광주문예회관의 유일한 문화예술 전문가로 개방형 공채를 통해 적임자를 선임해왔다.

지역 문화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문예회관장의 문화 전문가 영입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그나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는 점은 문제다.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이 다 되도록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괜한 억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지난해 11월 초 임기가 끝난 민간 개방형 학예 1과장의 공개 채용을 진행, 인선을 마치고 올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밖에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된 광주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자리도 메워야 할 상황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5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한 ‘2015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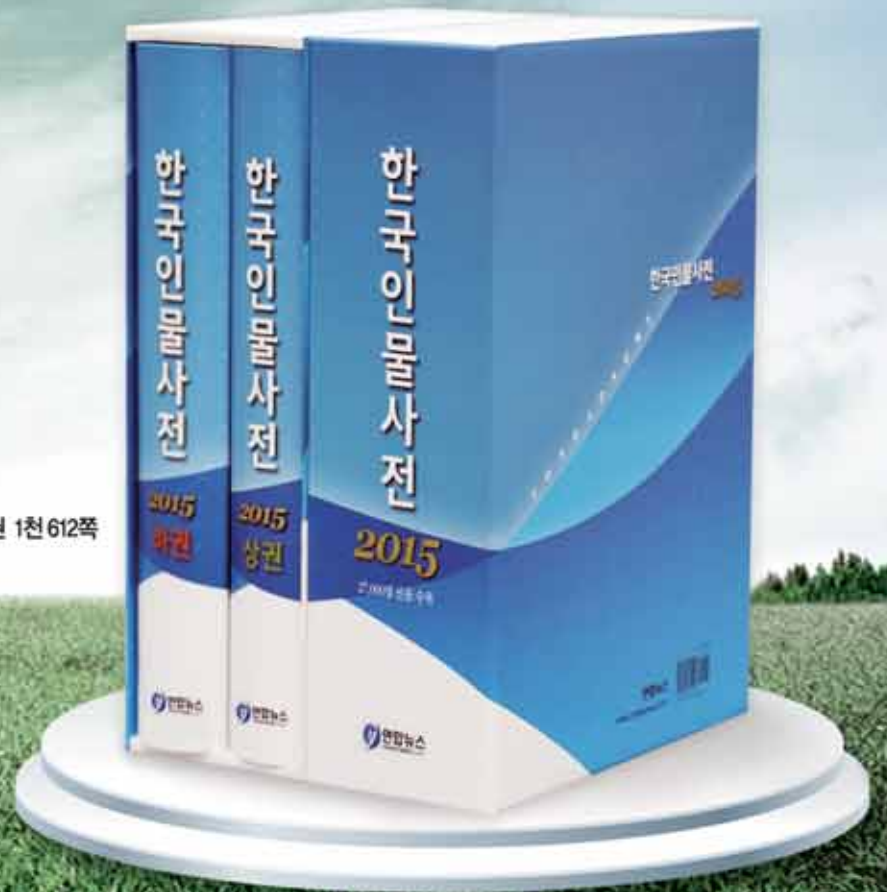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 인사를 두루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으로서 자세한 인물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기획인물편에서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4천여 명의 명단(상권 수록)과 프로필(하권 수록)을 한 섹션으로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록 인사들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인터넷과 관련 문헌도 꼼꼼히 참조해 보완했습니다.

2015년판은 지난해에 비해 3천여 명을 추가했으며, 수록인물도 상당수 바뀌어 최신 인물 소개에 주안점을 했습니다.

■ 국배판 · 상권 1천 244쪽 / 하권 1천 612쪽
■ 가격 : 18만원



구입 문의 서울 (02)398-3590~3, 371 (031)238-2222, 인천 (032)427-1236, 대전 (042)521-9705, 광주 (062)264-5777, 부산 (043)226-5005, 전주 (063)242-7652, 창원 (055)281-0010, 울산 (051)441-7400, 대구 (053)355-3800

연합뉴스 YONHAPNEWS.COM